

하나제약 (293480)

기업탐방 브리프 | 제약/바이오

NR

목표주가	
현재주가	24,250 원
시가총액	3,929억원
KOSPI (8/21)	1,964.65 pt

업황 update

Analyst 최석원 _ 02 3779 8446 _ cseogwon@ebestsec.co.kr

컨센서스 대비

상회	부합	하회

Stock Data

90 일 일평균거래대금	17.32 억원
외국인 지분율	1.5%
절대수익률 (YTD)	7.8%
상대수익률 (YTD)	11.5%
배당수익률 (19E)	1.0%

재무데이터

(십억원)	2016	2017	2018	2019E
매출액	124.5	139.3	152.8	159.4
영업이익	23.7	31.9	33.6	33.2
순이익	17.4	24.3	26.2	28.6
ROE (%)	31.4	29.9	12.8	13.4
PER (x)	n/a	n/a	11.4	13.7
PBR (x)	n/a	n/a	1.5	1.8

자료: 하나제약,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 K-IFRS 별도 기준, 2019년 추정치는 지난 4개분기 실적의 단순 합산치

Stock Price



국내 마약성 진통제 및 마취/진정제 1위 업체

- 하나제약은 마취통증(마약성 진통제와 마취/진정제) 의약품 시장 국내 1위 업체
- 현재 국내에서 약 30개 제약사(해외 제약사 포함) 관련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 규모는 마약성 진통제 약 700억원, 마취/진정제 시장 약 1,000억원 수준
- 마약성 진통제 시장: 최근 3년간 7%~8%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음. 이는 평균수명 증가로 만성질환을 비롯한 암 발병율이 증가하고 있고, 보험 급여 적용 범위 확대와 비암성통증에도 2차선택약제로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
- 마취/진정제 시장: 최근 3년간 10%대 초반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음. 이는 인구 고령화로 외과적 수술 증가, 미용목적 수술/시술 증가, 국가검진 보편화에 기인
- 특징은 관련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현재 마약성 진통제는 품목당 국내 5개사, 해외 5개사 제한되어 있으며, 진정제 시장 역시 하나제약, 동국제약, 해외 1개사로 제한).
- 2018년 기준 동사의 매출: 진통제와 마약/마취 관련 매출 466억원(30.5%), 나머지는 기타 ETC 제품

실적의 방향성 및 체크 포인트

1> 외형

- 마취통증 관련 매출은 10%대의 안정적 성장 기대
- 단, 현재 260여개의 품목 중 80여개가 위탁 생산(매출 비중 약 30%)인데, 향후 제네릭 약가 제도 개편으로 일부 관련 제품에 대한 Q 또는 P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 있음
- 신제품인 '레미마졸람'에 대한 판매 허가 신청(일본 4Q18, 국내 4Q19)이 예상대로 진행될 경우 하길 신공장 증설('21년 준공 예정, capa 2,000억원)에 대한 효과는 '21년부터 본격화될 예정

2> 수익성

- 위탁 생산 제품 중 주요 제품은 직접 생산으로 돌릴 예정이며, 이에 따른 전환 비용(자체 생동성 진행 등) 발생 예상
- 하길 신공장 증설에 따른 고정비 증가 예상

하나제약 목표주가 추이		투자의견 변동내역											
(원)	주가 목표주가	일시	투자 의견	목표 가격	과라율(%)			일시	투자 의견	목표 가격	과라율(%)		
					최고 대비	최저 대비	평균 대비				최고 대비	최저 대비	평균 대비
		2019.08.22	NR	NR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최석원)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의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합계	+15% 이상 기대 -15% ~ +15% 기대 -15% 이하 기대	93.9% 6.1%	2015년 2월 2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4단계 (Strong Buy / Buy / Marketperform / Sell)에서 3단계 (Buy / Hold / Sell)로 변경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18. 7. 1 ~ 2019. 6.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